

부동산·출총제 등 정책 혼선…경기 하강 국면 진입

한국 경제 흔들린다

불확실성 증대… 기업 투자·소비 악영향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끝없이 밀려온다. 부동산 광풍이 전국을 강타하더니 2년8개월만에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국민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과 정부, 국민들은 곳곳에서 반복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야당은 장기적인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 보다는 정권 획득을 위한 전술에 온 힘을 쏟는 모습이다. 경제현안챙기는 뒷집이다.

국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놓고 정부에 분노와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는 커녕, 다시 위기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최근 내외부 악재가 아니더라도 이미 하강의 길에 들어섰다. 지난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GDP)은 전분기에 비해 0.9%가 늘어나는데 머물러 작년 4·4분기 1.6%, 올해 1·4분기 1.2%, 2·4분기 0.8% 등으로 경기 하강의 모습을 확인하다. 특히 지난 3·4분기에 민간소비는 전분기보다 0.5% 늘어나는데 그쳐 작년 1·4분기의 0.5% 이후 6분기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게다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설상가상의 악재가 되고 있다. 환율하락은 한국경제의 핵심

엔진인 수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이 주목하고 있으나 수요·공급에 의한 환율 흐름을 균형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가 적지 않다.

이율러 최근 전북 예산에서 발생한 AI가 더욱 확산된다면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심리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세계 경제의 상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여곡절끝에 출자총액제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열린우리당은 지난 27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안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 출총제 개선안은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됐다.

최근에 최대 이슈로 부상한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당과 야당 내부에서도 신중한 고민보다는 일단 목소리를 높이고 보자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최근 종

합부동산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으나 당 지도부는 부동산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역시 부동산 세금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을 계기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민 간 갈등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종부세 대상자들은 조세저항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무주택자나 저가주택 소유자들은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 경제전문가는 "집권말 레임덕이나 여야 대립으로 인한 정책혼선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 기업투자나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성이 있다"면서 "사회통합을 이를 수 있도록 각계 각층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한국경제 내년 성장률 4.4%

OECD, 지난 5월 전망 보다 0.9%p 낮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경제가 올해 5.0%, 내년에는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치에 비해 올해는 0.2%포인트, 내년은 0.9%포인트가 각각 낮아진 것이다.

OECD는 28일 내놓은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은 최근 민간소비 회복, 지연과 환율하락, 유가상승 등으로 내수와 수출 호조세가 다소 문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수출이 문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OECD는 따라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5.0%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민간소비는 4.2%, 총고정투자는 2.6%, 수출은 12.9%의 성장세를 각각 보일 것으로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OECD는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4.4%를 제시해 지난 5월 전망치(5.3%)보다 0.9%포인트나 내려 잡았다.

OECD는 내년 민간소비와 수출 증가율이 각각 3.8%, 11.0%로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총고정투자는 3.2% 늘어 올해보다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또 실업률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3.4%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보다 더 낮아진 뒤 2008년에는 적자(GDP대비 △0.4%)로 돌아설 것으로 OECD는 예상했다.

향후 소비·투자 등 내수는 유가의 하향 안정 움직임과 환율 안정세 등에 힘입어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나, 수출은 증가세가 다소 문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특히 내년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북한관련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자·기업의 치감경기 악화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자율 상승이 민간소비를 제약시킬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1년만기 정기예금 연 5.80%

저축은행 금리 인상 행진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 5.80%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이 3개월만에 재등장하는 등 저축은행의 금리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언제까지 이런 상승세가 지속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저축은행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110개 저축은행의 평균 예금금리는 연 5.34%로 한 달 전의 5.29%보다 0.05%포인트 상승했으며 27일에는 서울의 대형 저축은행이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 5.80% 금리를 주기 시작했다.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9월 중순부터 오르기 시작해 11월까지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는 주세다.

이러한 금리 인상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 대출 증가에 따른 자금 수급의 불균형 때문으로 여신 증가율을 수신증가율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간 여신액은 2조1천169억원 늘어났지만 수신액은 여신증가율의 3분의 1 수준인 7천265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율들이 1월부터 10월까지 월평균 여·수신금액에서도 수신액은 월평균 5천241억원 증가한 반면 여신은 월평균 5천296억원 증가해 여신의 증가 폭이 다소 크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를 올리기는 했지만 신규 예금보다는 만기가 돌아온 기준 예금을 재유치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부동산 여신 때문에 자금이 달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도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고 창구에서도 금리 경쟁이 끌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금리 상승세는 조만간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종용 부회장 5년 연속 베스트 CEO



경영전문지 월간CEO는 최근 언론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경제·경영 교수, 경영컨설턴트, 헤드헌터 등 경제분야 전문가 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06 베스트 CEO'를 선정한 결과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윤 부회장을 '베스트 CEO'로 꼽은 응답자들은 세계적 브랜드 창출과 타일한 리더십, 실적향상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닉 라일리 전(GM) 대우 사장(35표), 이구택 포스코 회장(27표), 황창규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사장(25표)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고 월간 CEO는 설명했다.

'롯데인베스' 아파트 순천에 1,161가구 공급

순천에 1천161세대 규모의 '롯데인베스' 아파트가 들어선다.

'롯데인베스'는 순천시 조례동 법조타운 뒷편에 건립되며, 롯데그룹 계열인 롯데기공에서 시공을 담당한다. 이번 1차 분양에서는 전체 1천161가구 중 66평형, 56평형, 47평형, 34평형 등 720가구가 공급된다.

단지 인근에 뉴코아밸리점과 훌플러스, 킴스클럽 등 생활편의시설이 있고, 순천고, 순천강남여고 등 교육시설이 집중돼 있고 왕조·운곡지구의 조례저수지를 포함해 5만5천500여평에 달하는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문의 061-727-6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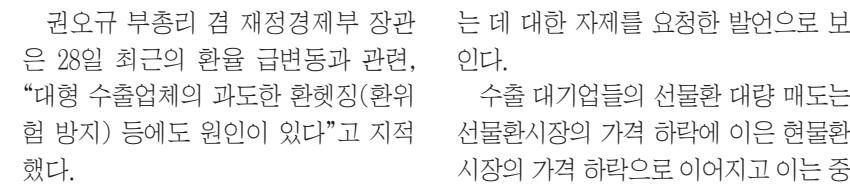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해외여행객 40만→3,000만명

35년새 75배 증가…국내 항공 수요는 감소

“환율 불안 과도한 환헷징 탓”

권오규 부총리 “인위적 경기부양 지양”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최근의 환율 급변동과 관련, "대형 수출업체의 과도한 환헷징(환위험 방지) 등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수출 3천억 달러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축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대형 수출업체의 과도한 환헷징 등에 의한 솔리ッド한 최근의 환율 급변동 원인 중 하나"라며 "이런 현상은 궁극적으로 해당 수출업체는 물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시장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는 환율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에 대비해 조선 등 수출 대기업들이 선불환매도 늘려 환율 하락을 가속화하고 있

는 데 대한 자체를 요청한 발언으로 보인다.

수출 대기업들의 선불환매도는 선불환시장의 가격 하락에 이은 현불환시장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중소기업들의 수출 채산성을 악화시킨다.

권 부총리는 또 "최근의 원·엔 환율 하락이 일본의 저금리를 이용한 엔캐리트레이드(일본 엔화를 차입해 하는 투자) 등에 기인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제포럼 등에서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한 환율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국제政을 강화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환위험회피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환율, 금리 등 거시경제 변수가 경제의 펀더멘탈과 괴리되지 않도록 운용하고 사후에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환율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에 대비해 조선 등 수출 대기업들이 선불환매도 늘려 환율 하락을 가속화하고 있

는 데 대한 자체를 요청한 발언으로 보인다.

세를 보여 1990년 962만6천415명, 2005년 2천968만3천846명으로 35년 전보다 약 75배 증가했다.

국제선 여행객은 1973년(143만2천860명) 100만명 시대, 18년 후인 1991년(1천27만666명) 1천만명 시대를 연두 10년 만인 2001년(2천35만504명) 2천만명을 넘었다가 작년 2천968만명을 기록해 올해는 3천만명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선 여행객은 1970년 국제선 여행객의 2배가 넘는 91만7천249명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1990년 1천106만3천820명으로 약 12배 증가했다가 1997년 2천563만8천653명으로 점점에 달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05년 1천715만7천595명으로 줄어들었다.

국내선 여행객은 1970년 국제선 여행객의 2배가 넘는 91만7천249명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1990년 1천106만3천820명으로 약 12배 증가했다가 1997년 2천563만8천653명으로 점점에 달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05년 1천715만7천595명으로 줄어들었다.

작년 국제선 여행객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찾은 곳은 일본으로 859만2천명에 달했고 그 다음으로 동남아(842만6천명), 중국(657만3천명), 미국(301만1천명), 유럽(149만명), 대양주(91만명), 기타(68만1천명) 순이었다.

국내선 여행객은 1970년 국제선 여행객의 2배가 넘는 91만7천249명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1990년 1천106만3천820명으로 약 12배 증가했다가 1997년 2천563만8천653명으로 점점에 달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05년 1천715만7천595명으로 줄어들었다.

국내선 여행객은 1970년 국제선 여행객의 2배가 넘는 91만7천249명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1990년 1천106만3천820명으로 약 12배 증가했다가 1997년 2천563만8천653명으로 점점에 달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05년 1천715만7천595명으로 줄어들었다.

국내선 여행객은 1970년 국제선 여행객의 2배가 넘는 91만7천249명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1990년 1천106만3천820명으로 약 12배 증가했다가 1997년 2천563만8천653명으로 점점에 달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05년 1천715만7천595명으로 줄어들었다.

국내선 여행객은 1970년 국제선 여행객의 2배가 넘는 91만7천249명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1990년 1천106만3천820명으로 약 12배 증가했다가 1997년 2천563만8천653명으로 점점에 달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05년 1천715만7천595명으로 줄어들었다.

국내선 여행객은 1970년 국제선 여행객의 2배가 넘는 91만7천249명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1990년 1천106만3천820명으로 약 12배 증가했다가 1997년 2천563만8천653명으로 점점에 달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05년 1천715만7천595명으로 줄어들었다.

국내선 여행객은 1970년 국제선 여행객의 2배가 넘는 91만7천249명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1990년 1천106만3천820명으로 약 12배 증가했다가 1997년 2천563만8천653명으로 점점에 달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05년 1천715만7천595명으로 줄어들었다.

국내선 여행객은 1970년 국제선 여행객의 2배가 넘는 91만7천249명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1990년 1천106만3천820명으로 약 12배 증가했다가 1997년 2천563만8천653명으로 점점에 달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05년 1천715만7천595명으로 줄어들었다.

국내선 여행객은 1970년 국제선 여행객의 2배가 넘는 91만7천249명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199